

2013 EAACI-WAO 참석 후기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전임의 유혜수

2013년 EAACI-WAO World Allergy & Asthma Congress는 제 인생의 세 번째 유럽 여행지가 된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회 장소가 패션과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잘 알려진 밀라노라는 점이 더 큰 관심(매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올해는 *"Allergy: A Global Health Challenge"* 라는 주제로 EAACI와 WAO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여, 학회 시작 전부터, 이례적으로 가장 많은 초록이 접수되어 성황을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한 주최측에서 준비한 학회 첫날 저녁 Opening ceremony와 Welcome Reception때, 뜻밖의 놀라운 행사가 있다고 하여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부터 초록 접수와 학회 등록을 마치고 알레르기 학회에 지원 신청을 했지만, 전례 없이 많이 접수된 초록들과 국내에서도 학회 참석 지원자가 엄청나다고 하여, 참가자로 선정될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배려로 학회 지원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국제 학회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와야겠다는 의욕이 충만하여 밀라노 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하여, 첫 날은 미리 예약된 호텔에서 짐만 풀고 긴 비행기의 여정의 피로를 잠으로 달랬습니다.

학회 첫 날 아침, 단잠 후의 가벼워진 몸으로 숙소에서 도보로 20여분 떨어진 학회장, Milano Convention Centre (MiCo)에 들어섰습니다. 첫날의 일정은 postgraduate course가 주를 이루었으며, 저녁에는 학회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Opening Ceremony와 Welcome Reception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회 측의 뜻밖의 선물은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이었습니다. 팝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천상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기대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2013 EAACI-WAO 학회의 시작을 더욱 빛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Opening Ceremony동안 WAO의 Special Recognition Award를 박해심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게 되어, 대한민국 알레르기 분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의 피곤한 비행의 긴 여정과 시차를 고려해서 인지, 첫날의 일정은 이렇게 warming-up할 수 있게 가볍게 끝났습니다.



[학회장, Milano Convention Centre (MiCo)]



[Welcome Reception in MiCo]



[Andrea Bocelli in Ceremony]



[WAO Special Recognition Award]

둘째 날부터는 아침 7시 30분부터 Meet the Expert로 시작하여 여러 알찬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있어, 조금 더 관심 있는 session을 고심하여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올해는 “*Allergy: A Global Health Challenge*” 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8개의 plenary symposium과 35개의 symposium, 25개의 workshop 등 총 341의 session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과서와 유명 저널에서 저자로 접해오던 알레르기 분야의 유명한 세계적 대가들의 강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으며, 임상과 과학 모든 분야에서의 가장 최신의 그리고 획기적인 연구 결과들을 다루고 있어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Understanding urticaria”라는 title의 oral abstract session에서 구연 발표가 있는 날이어서 긴장된 기분으로 이른 아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었지만, 구연 발표로 조금은 산만하게 참여하게 되어, 담대함이 더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큰 실수 없이 발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더 활발하게 질문하고, 자신 있게 토의에 참석하고 학회에 적극적 참여자가 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The KAAACI Booth]

5일간의 바쁜 학회 일정 동안, 잠시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과 이탈리아 명품거리를 구경할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밀라노에서는 밤 10시가 되어야 해가 저물기에 늦은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좋았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은 카톨릭 성당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밀라노 두오모 성당을 보자마다 말문도 막히고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패션 도시 중의 하나인 밀라노의 명품 거리를 거닐며 명품샵들 디스플레이만을 감상하였지만, 눈의 즐거움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피자 만두 튀김과 젤라또를 맛 볼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는 최후의 만찬을 보기 위해 밀라노를 찾는다고도 하여, 사전 예약이 필수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출국하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Santa Maria delle Grazie)에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사전 예약이 필수인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무작정 찾아갔던 무모함을 반성하 말펜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Piazza del Duomo]



[The Duomo di Milano at night]



[Church of Santa Maria delle Grazie]



[Panzerotti (피자 만두 튀김) of Luini]



[젤라또 전문점 cioccolati italiani]

이번 2013 EAACI-WAO 학회에는 전세계 110개국에서 77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였고, 알레르기과 면역학 그리고 관련 임상과학 전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 학회일정 내내, 좌장 및 연자로 초청받아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구연과 포스터 발표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한 국내의 여러 전임의, 연구원 및 전공의들의 활약에 아주 뿌듯하였습니다. 국제 학회에서 우리 학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서울에서 열리는 2015년 World Allergy Congress 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바람과 믿음, 그리고 확신을 가져봅니다.